

국립여수구호병원의 집단 난투사건

—60년대 결핵자활촌의 일그러진 자화상—

김 대 규 /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6·25동란 후 결핵환자는 급증하였고, 가난한 국가재정과 한정된 결핵병상으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 장기간 병상을 점유한 환자를 강제 퇴원시켜 여수로 집단이주시켰다.

이름하여 결핵자활촌—오갈데 없는 난치환자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의 가슴아픈 사연들.

경찰관과 집단난무극

1958년 보건사회부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가막만(加莫灣)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남 여수시 신월동 376번지의 26만여평의 땅에 국립여수구호병원을 개설하고 전국의 군병원에 장기간 입원중인 결핵환자를 골라 제대시키고, 이 병원에 집단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 후엔 마산과 공주결핵병원의 장기 입원환자도 이곳으로 강제이송되었다. 그런데 마산병원의 이송대상환자들은 강제이송을 사생결단 반대하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시위하며 누구라도 접근하면 담뱃통을 뿌리

겠다고 위협하면서 요지부동이였다.

병원당국의 요청으로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냥 철수하였으며 급거 내려온 보사부 직원은 여수에 가면 그곳에 정착해 치료를 받으면서 농장도 일구고 가축도 기르며 자활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일부 환자는 체념했지만 대다수는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버스를 대기시키고 직원 여섯명이 환자 한 사람씩 강제로 버스에 실었고 이송은 그렇게 끝났다. 이곳은 일제때 일본 해군의 군사시설이 있었고, 광복후에도 군용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국립구호병원으로 막상 개원은 했으나 말이 병원이지 기본장비도 갖추지 못한 엑스레이 기계 한 대 없는 보잘것 없는 시설이었다.

환자들은 무의무탁한 장기환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열악한 시설과 빈약한 의료진, 형편없는 급식과 처우로 불만이 고조되어 가던 차에 1959년 2월 병원당국이 시설비 4천만원중 2천8백만원을 불법사용한 것을 비롯, 장례비와 그 외 여

警官과集團亂闘

患者三百名, '몽둥이' 들고

麗水救護病院基平

쌍방 40餘名負傷

警察 令狀집행 못하고 撤收

麗水救護病院
集團亂闘事件

【本報記者 李正基 麗水 9월 12일 특파원 리정기 리포트】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麗水市 廣陽區 廣陽洞에 있는 麗水救護病院에서 警官과 患者들 사이에서 集團亂闘이 일어났다. 이 때 警官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患者들도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警官들이 令狀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患者들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한 것이다. 이 때 警官들이 患者들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患者들이 警官들을 때려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警官들이 令狀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患者들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한 것이다. 이 때 警官들이 患者들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患者들이 警官들을 때려 부상을 당했다.

令狀保留를要請

現地調査 朴保社大官

麗水救護病院
事件

【本報記者 李正基 麗水 9월 12일 특파원 리정기 리포트】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麗水市 廣陽區 廣陽洞에 있는 麗水救護病院에서 警官과 患者들 사이에서 集團亂闘이 일어났다. 이 때 警官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患者들도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警官들이 令狀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患者들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한 것이다. 이 때 警官들이 患者들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患者들이 警官들을 때려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警官들이 令狀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患者들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한 것이다. 이 때 警官들이 患者들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患者들이 警官들을 때려 부상을 당했다.

經理不正도원인

警察 令狀집행 못하고 撤收

麗水救護病院
事件

【本報記者 李正基 麗水 9월 12일 특파원 리정기 리포트】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麗水市 廣陽區 廣陽洞에 있는 麗水救護病院에서 警官과 患者들 사이에서 集團亂闘이 일어났다. 이 때 警官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患者들도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警官들이 令狀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患者들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한 것이다. 이 때 警官들이 患者들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患者들이 警官들을 때려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은 9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警官들이 令狀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患者들이 '몽둥이'를 들고 반항한 것이다. 이 때 警官들이 患者들을 밀어붙이려 했을 때 患者들이 警官들을 때려 부상을 당했다.

▲ 국립여수구호병원의 집단 난투사건을 보도한 당시 동아일보의 1960년 9월2일자, 9월4일자, 9월7일자, 9월 12일자 기사들.

러가지 경리부정이 있다 하여 환자들이 관계 간부직원 13명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병원측에서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자 분규가 발생하였다.

4·19 직후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극도로 악화된 구호병원 분규사건의 와중에 환자들이 이 병원 이음회사무과장이 몰래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발견, 몽둥이로 집단폭행하여 중태에 빠뜨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1960년 8월 31일 주동환자 문상길(文相吉)씨 외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려 했으나 300여명의 환자들이 이것을 거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병원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요소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집단경비망을 구축했다.

다음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두 검

사가 현장에 출두하여 경찰을 지휘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돌발사태를 우려, 광양(光陽), 순천(順天) 등지에서 동원된 70명의 경찰과 여수경찰서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정사복 경찰을 7개소대와 특찰반으로 편성하여 구호병원에 투입했다.

그러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환자 300여명이 몽둥이로 경관들을 구타, 환자와 경찰간에 집단난투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견디지 못한 대부분의 경관들은 하는 수 없이 후퇴했다가, 다시 진입, 환자들에게 돌을 던지며 포위하기 시작했으나 사정없이 휘두르는 환자들의 몽둥이 세례에 결국 광양경찰서 경비주임 등 두 사람이 실신하였고 10여명의 경찰이 쓰러졌으며 환자측에서도 상당수의 중환자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결국 쌍방 40여명의 중경상자를 낸 채



▲ 중증난치환자가 많았던 국립여수구호병원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으며 장례식은 환자들의 손으로 치루어졌다. 사진은 먼저간 요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환자들. 1962년 가을

경찰에서는 영장집행도 단행치 못하고 희생자의 속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수하고 말했다.

국회조사단도 파견

극도로 악화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이근수(李根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까지 현지에 출동하였으나 법의 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환자들의 난동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한 문상길씨외 6명에 대해 5일 이내에 자진 출두할 것과 만일 자진 출두치 않을 경우에는 상부에 연락하여 경찰의 기동력을 배가, 강제 영장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1960년 9월 3일 보건사회부 박찬현(朴讚鉉) 정무차관이 직접 여수에 내려가

사건진상을 조사규명하는 한편 '환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거부한다' '병원의 운영을 정상화 시켜달라'는 환자들의 요구조건을 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지난날의 모든 사건을 백지로 돌린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여수구호병원 난투사건은 일단 수습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고 도하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는데 국회에서는 1960년 9월 6일 유청(柳靑) 의원의 4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구호병원 분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청의원은 경찰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환자들의 난투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7명의 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백명의 경찰이 동

원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병원분위기와 환자들의 태도로 보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하였으며 이미 발부된 영장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의 불우한 입장을 고려한 검찰당국의 처사라고 보나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 했다.

환자와 경찰이 난투극까지 벌인 분규가 수습된 후 보건사회부는 운영개선책으로 1963년 2월 25일 이름을 결핵환자 자활촌으로 바꾸어 그 관리책임을 여수시로 이관하였다.

그 때 시설상태는 침대놓고 사용하는 병동식 2층목조건물 2동과 의무실 1동, 사무실 1동, 자체 미용실 이발소 1동, 병사는 50동 정도였으며 부엌을 같이 사용하고 방을 각각 사용하였다.

환자수는 240명 정도였고, 의무진은 시보건소에서 파견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결핵약은 한달에 한번 한 달치를 주고 다른 치료는 수시로 실시했다.

여수시로 이관되었다가

자활을 위해 일부 작업이 가능한 환자들은 야채를 재배하고 닭과 돼지도 기르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으며 자활촌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일부는 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부식은 시 사회과에서 구입, 일요일마다 공급했다. 식사준비나 세탁 등은 스스로 해결했고, 힘든 사람들은 파출부식으로 도움을 받았다. 드물게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외로운 생활을 했다.

여수시에서는 이 자활촌의 운영관리

에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들은 항상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무리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자활규칙을 무시한 채 시내 대중음식점이나 이발소, 목욕탕, 극장 같은 곳을 함부로 출입하면서 공중위생을 해치고 비위가 거슬리면 관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걸핏하면 집단으로 시청에 쳐들어오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여론도 나빠졌고, 시에서도 그 처리에 고심하면서 여러차례 보건사회부에 자활촌의 이전을 건의했으나 적당한 이전 후보지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1976년 7월 23일 한국화약주식회사가 방위산업공장의 건설을 위하여 신월동으로 들어오게 되자 집단 이주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 1977년 11월 17일께 자유분산케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보상금 1억 8천 9백만원(1인당 240만원꼴)과 가축 등 환자사유재산보상비 7천6백9십만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48세대 132명이 임의로 떠났고, 나머지 52세대가 울촌면(栗村面)에, 18세대가 보성(寶城)에, 19세대가 여수시에 이주함으로써 15년 동안 여수시 당국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신월리 자활촌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卍

전체 내용에 극히 일부뿐이지만 연재는 이번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새로운 자료를 주시거나 조언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자주)